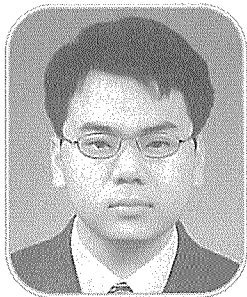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13)

- 인터넷에서 찾는 주식 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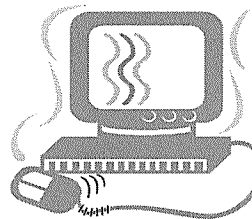
글/류지창

INTER
NET

최근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 환경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자 다시 증권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은 증권을 살까 혹은 팔까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틈틈이 증권회사의 객장을 방문하여 시세 변화를 살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은 주식 시장이 한창인 시간에는 근무 때문에 객장을 방문하기는 힘든일이다. 그러다 보니 몰래 전화로 정보를 듣거나, PC통신을 통해서 증권 시장 정보를 얻곤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이라면 훨씬 편리한 방법이 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그것도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일 먼저 살펴볼 정보는 주식 시장의 현재 가격을 조회해보는 방법이다. 현재가에 대한

정보는 많은 증권회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자신의 회사에 계좌를 가진 고객에 한정하는 수가 많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조흥증권의 홈페이지는 누구에게나 주식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주소는 <http://www.chts.co.kr>이며, 현재 시각의 종합 주가지수와 1분 간격의 종합 주가 지수 변동 그래프를 초기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 두화면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웹브라우저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창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계속 자동 갱신 되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놓고 있으면 주가 변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화면 왼쪽 있는 메뉴에서 “종목 정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각 상장업체별 주식의 현재가와 매도/매수량 등 증권사 객장의 단말기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주식 시세를 알 수 있는 사이트로 또 유명한 곳은 증권 전산의 인터넷 홈페이지다. 이곳에서도 주식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와 무료 두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만 기입하면 즉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의 주소는 <http://www.korea-stock.com/>이며, 가장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화면에서 “사용안내/가입”을 클릭하며 사용자 등록을 한후, 무료 정보 코너인 “무료증권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증권 전산과 조흥증권을 이용하면 객장에 나가서 앉아 있는 효과를 100%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정리한 여러가지 보고서나 시황분석 등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증권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곳들이다.

만약, 현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특정 상장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다.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종업원 수는 얼마인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한다. 이때는 증권 거래소(<http://www.kse.or.kr>)의

상장기업 공시정보(<http://203.235.1.252/index.htm>)를 이용한다. 이곳에서는 모든 상장 기업의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및 재무 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 정도의 기본 정보는 사전에 조사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을 했다면 남은 일은 주식을 사거나 파는 일이다. 대개 이런 주문은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 전화 통화는 잘 안될 때도 있고, 객장은 찾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때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한다. 홈 트레이딩이란 이름 그대로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 많은 증권 회사들이 이런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우증권, LG증권, 한화증권, 세종증권, 삼성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홈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등이 있으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홈 트레이딩을 제공하는지 확인해보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대개의 경우 홈 트레이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에서 자체 제작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이 소프트웨어는 각 증권회사의 지점에서 CD-ROM으로 배포하거나 증권사의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홈 트레이딩의 장점은 객장에 나가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다 준다. 세종증권의 경우에는 홈 트레이딩을 통해서 주문을 낼 경우 거래 수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조금이나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면 시황 분석이나 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런 전문 정보는 유료로 운영된다. 전화 700 서비스를 이용한 시황 정보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모닝콜 증권 정보 서비스가 있다.

이 곳의 주소는 <http://www.morningstock.chollian.net/>이며 기본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선물전략, 파동 분석 등의 정보는 하루 1,500원의 정액제 요금을 받고 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며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증권도 앞서가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최소한 이번엔 소개한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다.